



[해설]
애플은 없다
삼성전자
'트리플 왕관' 눈 앞
03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위원회 소속 8개 대기업과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앞줄 왼쪽부터)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대덕전자 김영재 대표,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 노바렉스 권석형 회장, CJ제일제당 신현재 대표, 테스 이재호 대표, SK하이닉스 김동섭 부사장(뒷줄 왼쪽부터) 지에스리테일 조윤성 대표, 한국데리카후레쉬 조길영 대표, 포스코 장인화 사장, 대동 이동용 대표, 현대자동차 어승동 사장, 진합 이영섭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성장위

대-中企 임금 격차 줄인다 삼성 등 8社, 6.2조 상생지원

동반위 참여 대기업 협약

3년간 1~3차 협력사에
경영안정 금융 등 지원

합리적 납품단가 협의도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SK하이닉스, 포스코, CJ제일제당, 롯데쇼핑, LG화학, GS리테일이 협력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총 6조 2000억원을 적·간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은 협력기업 임직원 인센티브, 임금보전, 공동기술개발, 설비투자, 운전자금을 위한 상생펀드 운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이들 대기업은 최저임금이나 재료비 인상 등의 시세를 반영해 합리적 수준에서 납품단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협력기업과 협의하게 협의해나가기로 약속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 팔래스 강남호텔

〈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지원분야	지원규모(3년)	주요 지원내용
①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3,462억원	협력기업 직원 인센티브 지원, 임금공유제 시행 등
② 임금지불능력 제고 지원	1조 7,177억원	공동기술개발, 가맹점 수익보전 지원 등
③ 경영안정금융 지원	4조 1,478억원	동반성장펀드, 물대지원펀드 조성 등
합계	6조 2,117억원	

에서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이들 8곳의 대기업 위원사와 1차 협력사가 참여한 가운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들 대기업과 거래하는 1차 협력사 중에선 대덕전자(협력사 삼성전자), 진합(〃 현대·기아차), 테스(〃 SK하이닉스), 대동(〃 포스코), 노바렉스(〃 CJ제일제당), 빼띠앙뜨(〃 롯데쇼핑), 선구(〃 LG화학), 한국데리카후레쉬(〃 GS리테일)가 참석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임

금격차를 해소하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는 다른 문

제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인 만큼 임금격차를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동반위에 참여하고 있는 8개 대기업이 협력사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들은 ▲경영안정 금융 지원 4조 1478억원 ▲임금지불능력 제고 지원 1조 7177억원 ▲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3462억원 등 총 6조 2117억원을 2020년까지 1~3차 협력기업들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직·간접 지원에 대한 이

행 여부는 동반성장위가 자체 모

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사후 검

증에 나설 방침이다.

협약 대기업들은 또 납품단가 결정, 납품대금 지급 등을 위해서도 협력 기업들과 '공정한 소통'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납품단가는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부품 등의 시가, 적정 관리비 및 이의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단가 변경 사유가 발생한 협력기업이 조정 신청을 할 경우엔 신속하게 협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금 지급은 법정기일 안에서 가능한 짧은 시간에, 정해진 때가 없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기업 역시 대기업들의 약속에 발맞춰 혁신, 고용 창출 등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연구개발(R&D) 능력 제고, 생산성 향상,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경쟁력 향상 등이 대표적이다.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 등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서도 일조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서민엔 햇살 안 비치는 '햇살론'

4대 서민금융 상품 높은 문턱에
8등급 이하 이용자 9.2% 불과
8~10등급 위한 상품 필요 지적

지난 2008년 200억원 규모로 시작한 서민금융 정책상품이 10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게 한다는 서민금융 정책상품의 취지와 달리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 정책상품 이용자가 대다수 신용등급 6등급에 해당돼 8~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에겐 문이 넓지 않은 것. 일각에 서는 저신용자(8~10등급)를 위한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주요내용〉

/서민금융진흥원(2017.12 기준)

구분	미소금융	햇살론(근로자)	바꿔드림론
재원	휴면예금, 기부금	복권기금, 금융회사출연금	행복기금 수익금
용도	창업 운영자금	생계자금	고금리 대환자금
지원대상	6등급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6등급 이하(&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자	
금리	연 4.5% 이하	생계 1500만원, 대환 3000만원 등	대환 3000만원
한도	창업 7000만원 운영 2000만원 등	생계 1500만원 대환 3000만원 등	대환 3000만원
차주수	28만5475명	45만5470명	23만8660명
대출액	2조6023억원	4조8085억원	2조6321억원

금융정책상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민금융 규모는 미소금융 2조6023억원, 근로자 햇살

론 4조 8085억원, 바꿔드림론 2조 6321억원 등 총 10조 4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 정책상품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이다. 낮은

신용등급이거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민금융 정책상품에는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이 있다. 사업운영이나 창업, 생계용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햇살론이나 대부업체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는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서민금융 문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서민금융 상품 이용자 가운데 신용등급 6등급 이상 비중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8등급 이하 비중은 9.2%에 불과했다. 보다 어려운 저신용자(8~10등급)가 정책금융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Economy

코스피	2228.61	(-25.22)	코스닥	747.50	(-19.65)
금리	2.05	(국고체 3년) (-0.04)	환율	1134.00	(원·달러) (+1.30) (10일)

社告

메트로미디어 '2018 제약바이오포럼'

제약-바이오 경계 넘어...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생물학적의약품 복제약)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화약의약품 복제약(제네릭)의 과열 경쟁과 신약 부재로 인한 매출 침체로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사이 바이오의약품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각광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13년 9억달러(약 9600억원)에서 2016년 43억달러(약 4조 6000억원)로 3년새 5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관련 시장은 2020년에는 304억달러(약 33조원), 2026년에는 800억달러(약 84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도 오는 2020년 까지 바이오시밀러 국내 생산 200억 달러, 수출 100억 달러를 목표로 적극 지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동안 합성의약품에 집중해온 국내 전통 제약사들이 바이오의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세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어 유한양행, 종근당, 대웅제약, CJ헬스케어 등 대형 제약사들 역시 바이오신약 개발과 바이오시밀러 독점 판매에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업계 상황에 맞춰 메트로미디어는 오는 31일 '제약과 바이오의 경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2018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서울 을지로 폐럼타워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강경선 강스텝바이오 이사회 의장의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기동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전망을 비롯, 날로 커지는 제약과 바이오산업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주 제 : 제약과 바이오의 경계를 넘어
- 일 시 : 2018년 10월 31일 9:00~11:30
- 장 소 : 서울 을지로입구 폐럼타워 폐럼홀(3층)
- 주 최 : 메트로미디어
- 문 의 : (02) 721-9826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당일 카드결제 가능
- 사전등록 : forum@metroseoul.co.kr 또는 메트로경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로 신청

metro

'가뭄에 단비' 현대중공업 4년만에 해양플랜트 수주

美서 5000억 규모 계약

현대중공업이 4년여 만에 해양 플랜트 수주에 성공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휴스턴에서 석유개발 회사인 엘로 그 익스플로레이션과 4억 5000만 달러(약 5000억원) 규모의 '킹스 키'(King's Quay) 프로젝트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멕시코만에서 추진 중인 원유 개발사업을 위해 반잠수식 원유생산설비(FPS) 1기를 설치하는 공사다.

해당 FPS는 약 1년간의 설계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설비 제작에 들어간다.

현대중공업은 이 FPS를 일괄 도급방식(EPC)으로 제작해 오는 2021년 상반기 빌주처에 인도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이 해양플랜트 일감을 따낸 것은 2014년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나스르(NASR) 원유생산설비를 수주한 것이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이후 47개월 만이다.

지난 8월 나스르 물량이 출항하면서 일감이 바닥나자 해양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유류인력 2000여명이 발생했다.

이에 사측은 해양사업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조기정년 신청을 받았으며, 노조는 이에 반발해 두 차례 부분파업을 벌였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에 수주한 해양플랜트의 생산은 내년 8월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가 상승으로 해양플랜트 시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물량 확보를 위해 신규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